

第 4 部
로타리코리아
잡지와 '나'
(회원기고)

- 1 ● —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 2 ● — 나와 로타리 잡지와 특별한 인연
- 3 ● — 창간 40주년에 부쳐



창간 40주년 1963~2003 350호

◀ 글심는 차례 ▶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 로타리 나의 무지개 - 吳在環 전RI이사(3650·서울RC)
- 우리에게 로타리는 무엇인가 - 宋仁相 전RI이사 전로타리재단관리위원(3650·漢陽RC)
 - 42살에 깨달은 인생의 참의미 - 閔丙國 전로타리재단관리위원(3650·서울RC)
 - 나의 로타리 70年代 - 蔡熙秉 전RI이사(3650·西서울RC)
- ‘The 4Way Test’의 깨달음 - 尹周坵 한국로타리총재단 의장(3640·南서울RC)
- 장기 기증 결심 다져준 로타리활동 - 朴鍾允 한국로타리총재단 전의장(3680·뉴大田RC)
 - 힘든 일도 극복하는 불굴의 봉사정신 - 尹圭遠(3590전총재·陝川RC)
 - 인생의 혜안(慧眼)을 길러주는 로타리 - 辛澤泳(3630전총재·東浦項RC)
 - 로타리와 나의 심오한 인연 - 成基泰(3630총재·龜尾RC)
- 타고난 천성까지 바꿔준 일대사 인연(一大事 因緣) - 李鍾天(3640총재·서울江西RC)
 - 17년전 知人の 권유로 바뀐 봉사인생 - 金炳坤(3670총재·全州RC)
- 영원히 잊지 못할 바르셀로나 국제대회의 감동 - 李在允(3700전총재·大邱東信RC)
 -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해준 로타리 주회 - 高錫太(3710총재·光州無等RC)
 - 로타리가 바꾼 내 人生 行路 - 鄭哲圭(3640·서울永登浦RC 전회장)

2. 나와 로타리 잡지와의 특별한 인연

- ‘獎學金 400億 원 突破’는 로타리코리아 협조 덕분!
- 金泰麟 한국장학문화재단 이사장(3640·서울永登浦RC)
- 못다한 아쉬움 로타리코리아지 봉사로 위로받다 - 任孝淳(3690전총재·高陽RC)
- 로타리코리아지에 실린 Bomar 전 RI회장 기고문의 감동 - 朴鍾滿(3730총재·原州RC)

3. 창간 40주년에 부쳐

- 로타리코리아 편집실에 바란다 - 金錫和(3620전총재·새天安RC)
- ‘이달의 인물’ 고정란 신설하기를... - 朴 哲(3720총재·馬山港都RC)
- 로타리 재단기부 3관왕 달성을 회고하며! - 劉應鍾(3740전총재·淸州RC)
- 로타리코리아가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해야 - 金吉賢(3750전총재·安養坪村RC)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로타리 나의 무지개



吳在瓌
전RI이사 (3650 · 서울RC)

로타리의 이상은 우리들 회원 개개인의 높은 품격과 자유에 있습니다. 높은 인격이란 훌륭한 시민됨을 말합니다. 훌륭한 시민이란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힘써 풀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장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지도자로서의 스스로를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뚜렷한 개성의 소유자라야 합니다. 인간의 매력은 그의 개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집단이 한 덩어리가 되고, 봉사하는 활력의 원천이 바로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나의 행복을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추구하는 권리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힘써 본(本)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로타리의 봉사를 자원(自願)하는 민주주의의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량과 지도력 여하에 따라서 그 집단이 뭉쳐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그 누구나 마음대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받을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서 닥칠 수 있는 화(禍)를 자연스럽게 면(免)하게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의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태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새 시대를 크게 여는 우리 모두의 참

모습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들 로타리안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들이 가진 자유마저 잃게한다 했는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로타리안은 그 누구나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 일로 큰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그가 이미 남에게 나누어 준 착한 마음씨, 선의인 것을 우리는 로타리의 봉사를 통해서 힘껏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로타리의 봉사가 보람된 삶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다운 친구를 만드는 일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참다운 친구는 또 하나의 나’ 라는 말처럼 우리네 삶이 더욱 즐겁고 보람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다운 친구를 갖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친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로타리의 창시자 폴 해리스와 로타리의 협동 창시자 실버스터 실은 38년의 기나긴 세월을 친구사랑에 힘썼습니다. 20여 년을 앞뒷집에서 지내며 다정함을 더했습니다. 이 분들은 죽은 뒤에도 묘지 마운트 흙에 나란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힘껏 본받아야겠습니다.

로타리 문헌에 ‘봉사의 모험(冒險)-Service in Adventure’ 이라는 것이 있습니

다. 모험은 목숨을 건 신나는 체험이요, 기왕에 미처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찾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험은 모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복을 뜻하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로타리의 봉사가 곧 우리 모두에게 인간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로타리의 봉사에 있으니 말입니다. 모험은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정복에 도전하는 산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산에 오르냐’는 물음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 이라고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910년에서 1942년에 이르는 32년동안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을 지낸 체슬리 페리를 가리켜 로타리의 창시자 폴 해리스는 “나를 로타리의 창시자라고 부른다면, 그는 로타리의 건설자”라고 말했습니다.

체슬리 페리는 그 누구에게나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일만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할 생각만 있으면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봉사의 이상을 부담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색함없이 기쁘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곧 로타리 운동의 자랑스러운 강령(綱領)이라 했습니다.

그는 클럽단위의 봉사보다 로타리안 개개인의 봉사가 더욱 빛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관했으며, 봉사의 이상을 조건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로타리안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 되게 하는 길이 나 자신을 보다 나은 자 되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로타리는 체슬리 페리의 수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그를 명예사무총장으로 예우(禮遇)했으나 그는 평회원으로 남아서 봉사하는 자

랑스러움에 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로타리의 지도자상입니다.

로타리의 봉사와 더불어 싱그러움 더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로타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해묵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산다는 말씀처럼 로타리가 나를 새 사람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로타리가 빛나고 못 사람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로타리의 봉사를 제각기 힘써 실천할 때 로타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것 되며,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을 참다운 인간되게 하는 로타리운동을 더욱 크게 기대하는 오늘입니다.

종(鐘)은 종소리를 내야 종이요
노래는 노래를 해야 노래요
사랑은 사랑을 해야 사랑입니다.

폴 해리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로타리안을 향상시키는 방도의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동심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심이 있다.

어린이가 인생을 보는 눈에는 불신(不信)함이 없다. 우정이 살아있는 한 늙지 않으며 만의 하나라도 로타리가 로타리안을 높이지 못했다면 로타리의 말은 바 소임을 다 못한 것이리라.

평생 경험으로 얻은 나의 신념은 그 무엇이 나 나의 것 되게 하겠다는 마음은 옳지 않다는 것이요, 사리사욕(私利私慾)에서 벗어난 삶만이 참다운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수고로 행복을 더하게 한 사람으로 인해 오늘의 로타리가 있다.

로타리는 개인·국가·국제간의 친선(親善), 친절(親切), 우정(友情), 봉사(奉仕)라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국제로타리가 펴낸 ‘로타리의 예지(叡智)’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명의 로타리안이 ‘왜 내가 로타리안이 되었는가’라는 글을 담았는데 저도 거기에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지난 40년을 로타리와 더불어 살아온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타리의 높은 부가가치와 생활철학이요, 또 하나는 로타리가 안겨주는 지극한 형제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로타리가 뜻하는 바 네가지 생활철학이 담고 있는 진선미의 참뜻이 나의 날마다의 생활신조 ‘초아의 봉사’를 이루게 하는 보람찬 삶을 이어오게 했기 때문이요, 로타리의 친교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존재인 내가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과의 똬친 협력으로 보람찬 소산(所産)을 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에게 안겨주는 기쁨 못지않게 내가 남에게 안겨주는 기쁨을 두드러지게 크게 함을 실감하며 사는 나입니다.

저는 로타리의 창시자 폴 해리스를 더 없는 나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로타리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보라고 외치며 사는 나입니다. 극진한 형제사랑 이땅에 넘치게 하는 로타리에게 축복있으라.”

그 누구나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을 내가 남에게 해주는 일로 기쁨을 더하게 하는 황금률(黃金律)을 힘써 생활하는 우리입니다.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들임을 생활하는 우리입니다.

로타리의 봉사는 도움을 안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꿈을 듬뿍 나누어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로타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크게 실감하며 살 때 로타리의 봉사가 위대함 더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로타리 운동이 이 땅위에 심어진 바로 그해 1905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나이 30세였습니다. 이미 이름난 대학의 학장이었고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였던 그는 그 화려한 자리를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8년동안 의학을 공부한 뒤인 1913년 아프리카 란베레네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으로 그의 삶의 보람을 크게 하며 살았습니다.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요, 높임을 받는 사람은 중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였습니다. 90세에 이르는 그의 전 생애를 봉사로 일관했습니다.

로타리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로타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이해한다는 말은 세계가 하나 된다는 말이요, 세계가 하나된다는 말은 우리가 크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타리가 나를 바꾸어 놓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로타리의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지개 보노라면
내 가슴 뛰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이제라도 내 목숨 거두어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하노니 내 생애 하루하루가
천생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질진저

에드워드의 詩 ‘무지개’입니다.

나의 삶에 무지개를 그리게 하고, 로타리가 나의 삶에 무지개를 크게 그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로타리는 무엇인가



宋仁相
전RI이사·전로타리재단관리위원(3650·漢陽RC)

오늘날 전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성장, 발전한 우리 로타리는 미국 버몬트주의 윌링포드와 시카고의 환경이 폴 해리스에게 미친 영향으로부터 탄생했다.

윌링포드는 완만한 산의 능선들이 부드럽게 감싸안은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폴 해리스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곳에 터전을 잡은 뉴잉글랜드 사람들의 자애(慈愛)와 관용(寬容) 그리고 선의(善意)의 정신을 몸에 익힌 고향이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는 후일 그가 청년변호사로서 일하던 지역으로서 당시 시카고의 경제적 불황(不況)과 인심의 황폐(荒廢)로 인해 폴 해리스는 엄청난 고독과 삭막함 속에서 정신의 한계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그로 하여금 로타리를 창설하게 만든 동인(動因)이 되었던 것이다.

폴 해리스가 슬회(述懷)한 바와 같이, 그가 로타리운동에 헌신한 계보(系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타리운동은 그 계곡에서 흘러 내려와 그의 가슴속 깊이 담겨진 관용과 선의, 봉사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했다는 말이다.

그 숭고한 이상으로 탄생한 이래 로타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로의 벽을 뛰어 넘고 수용하는 관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용은 상대에 대한 배려(配慮)의 태도이다.

로타리의 관용정신을 포기한다면 국제로타리는 붕괴되고 만다. 폴 해리스도 “우리의 동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관용의 정신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신

봉하는 로타리의 강령(綱領)이나 봉사의 이념도 배려, 즉 관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기독교의 황금률(黃金律)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같은 의미로 공자는 ‘충서(忠恕)’라는 말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충(忠)’이란 진심(真心)이란 뜻이며 ‘서(恕)’란 배려의 마음이다. 공자는 “당신의 욕심을 없애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로타리는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특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타리의 세계에서는 자기 국가나 민족의 입장에 치우쳐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상대를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천차만별의 방법으로 봉사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행동집단이 바로 로타리인 것이다.

로타리안은 ‘초아(超我)의 봉사(奉仕)’라는 산의 정상을 향하여 여러 개의 등산로를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그 길에서 숨이 차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질타(叱咤)하고 그냥 내버려둔 채 혼자서만 길을 재촉하는 무정한 동반자이기 보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충서하며 격려함으로써 함께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로타리는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운동이다. 가이 건데이커 전RI회장(1923~24)은 모범적인 로타리안의 전형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로타리안’을 들었다. 로타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꿈과 이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 행동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언젠가 로타리모임에서 만난 한 선배가 “로타리안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도 금전적인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무엇이 지역사회에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로타리의 기본이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한 것이 기억이 난다.

로타리가 과연 무엇이나, 로타리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나, 로타리 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들에 대한 설명에 이보다 더 적절한 대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타리는 결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여 뒤떨어지거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된다. 폴 해리스는 로타리가 시대의 변화와 궤(軌)를 같이 해야 하며 우리 로타리안들도 자기만족에 빠져 경직된 이상을 고수하지 말고 변혁할 것은 과감히 고쳐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한 자세를 견지(堅持)해 왔기에 로타리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1,2차 세계대전과 몇 번의 대공황도 이겨내고 오늘날 166개국 35지역에서 12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적 봉사단체로 성장 발전한 것이다.

이 로타리가 가진 봉사의 철학과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柔軟性)이야말로 로타리의 꿈이자 이론이요 또한 행동철학이기도 한 것이다.

제임스 레이시 전RI회장은 1998년 9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합동주회에서 “우리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타리의 꿈을 따를 것

이며 마침내 그 꿈을 구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야기한 대로 한사람의 꿈이 없었다면 오늘 로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사업단체인 로타리재단도 없었을 것이며, 소아마비 박멸이라는 꿈이 없었다면 20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라는 지겨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의 설립자인 故 友石 朴東奎 전총재는 그의 저서 ‘민들레의 집념’에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쓴 바 있다.

“민들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풀의 하나다. 그 잎사귀나 꽃 모양도 과히 볼품있는 편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란 빛깔의 혀꽃 꽃에서 여물어 맺어지는 열매는 흰 깃털(冠毛) 때문에 쉽게 바람을 타고 엉뚱한 데까지 날아가서 싹을 낸다. 토막이 난 뿌리에서도 새 잎이 돋아난다. 그만큼 그것은 번식(繁殖)에 대한 강인(強韌)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풀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체념적(諦念的)인 생활태도보다 겸허(謙虛)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염원하면서 애쓰는 집념을 가진 생활인에게 더 매력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이 책을 ‘민들레의 집념’이라고 제(題)한 이유도 인상적이다. “민들레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집념(執念)이라고 생각했다. ‘집념’을 ‘꿈’으로 해볼까하는 생각도 가져 보았다. 여기에서의 꿈과 집념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은 집념보다 훨씬 미화된 표현이고 따라서 오히려 민들레의 서민적인 풍모(風貌)에 격이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념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朴東奎 전총재의 꿈과 집념은 오늘날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의 위대한 성공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사람의 꿈, 집념이

수많은 불우학생들의 장학사업으로 결실된 것이다.

로타리안 선배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로타리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마치 들꽃이 들에 가득 피어오르듯이…”라고. 여기서 들꽃이라는 표현은 1921년 처음으로 국제대회가 미국 이외의 지역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을 당시 폴 해리스 부처(夫妻)를 맞이하였던 노래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 노래 가사에는 “저는 작은 들꽃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씩씩하게 자라서 많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이 들꽃은 온실의 꽃과는 달리 그 뿌리를 대지에 깊숙이 내린 꽃이어야 하고 더욱이 시시각각 성장해 나가는 강한 ‘생명력(Vitality)’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지 민즈 전RI사무총장(1953~72)은 에반스톤의 RI본부에서 행한 기념강연에서 “로타리안의 관심사는 건물이나 건립장소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봉사의 이상에 마음을 기울여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 그리고 로타리의 중요성과 널리 뻗어나가는 영향력은 수천 개에 달하는 각 지역에서 로타리클럽의 영향력의 깊이와 위력에서부터 비롯되며 인류에의 봉사라는 강력한 씨줄과 날줄로 꼭 차있는 것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난다”라고 갈파(喝破)한 바 있다.

오늘의 로타리를 생각하면서 21세기에 로타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예측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가장 먼저 ‘지속적인 회원강국’을 들고 싶다. 회원증강이 없이는 로타리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배의 추천을 받아 로타리에 가입하였다. 이제는 그 답례로서 우리의 친구들을 로타리클럽에 추천해야 한다. 동양에서 말하는 이웃과의 나눔이라는 좋은 관습을 따라 로타리클럽의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친구들

과 더불어 로타리를 나누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전세계 로타리클럽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로타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봉사의 폭과 깊이를 넓힐 것이며 회원강국을 촉진시키고 로타리안 상호간의 동반자의식 또한 더욱 깊게 하는 매체(媒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로타리재단의 육성,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로타리재단은 국제로타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서, 대부분의 로타리 사업은 재단의 교육 및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 로타리안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그 추진력을 얻게 되는 로타리재단은 상용보조금과 같은 인도주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급증과 투자수입의 격감으로 인해 세계기금(World Fund)의 지원을 받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로타리재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로타리안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세기 지식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단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4가지 표준」의 발안자인 허버트 테일러 전RI회장(1954~55)은 “로타리는 인간을 육성하는 장(場)”이라고 했는데, 이는 로타리 자체가 회원 상호간 평생교육의 장이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육에 더욱 힘을 쓰는 것이 로타리의 미래를 번영으로 끌어가는 첩경(捷徑)이라는 뜻도 담겨있는 것이다.

이상 로타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로타리의 사명은 더욱 중요해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지고 있다. 지금은 로타리안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로타리란 과연 내게 있어 무엇인가, 라고 자문자답(自問自答)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타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에 앞서 우리가 로타리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로타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우리 주변의 세상이 급변하고, 로타리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된다 하더라도, 로타리 초창기의 소박(素朴)했지만 숭고했던 정신, 즉 관용과 선의에 바탕을 둔 '초아의 봉사' 라는 로타리의 이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2살에 깨달은 인생의 참의미



閔 丙 國
전로타리재단관리위원(3650 · 서울RC)

여러분은 왜 로타리안이 되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1980년, 나이 42세 때, 저는 갑작스레 제 시력과 체중이 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기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업무와 사회생활에 한창 바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로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검진한 후 어찌면 상당히 심각한 증상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더 큰 병원へ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지시했습

니다. 해가 가고 사람이 가도 로타리는 영원하다. 로타리의 숭고한 이상은 열사(熱砂)의 사막이나 삭풍(朔風) 몰아치는 혹한(酷寒)의 동토(凍土)에서도 모든 난관을 극복할 것이다.

만년(晩年)의 폴 해리스는 “로타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로타리는 항상 인류사회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의 진보, 경제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며, 결국에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어렵고 험한 시대를 직면하고 있으나 다시금 밝은 내일의 도래(到來)를 믿으며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서로 긍정(肯定)하며, 친구로서 형제로서 로타리의 높은 이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니다. 큰 병원의 담당의사는 저의 증상들이 위암의 증상들과 일치한다는 말을 했을 때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 의사는 제게 2주 안에 검사결과가 나오니 그때 용기를 갖고 힘든 결정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2주는 제 생애에 있어 가장 힘든 시련의 날들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 처음으로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능성과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면, 나는 곧 죽게 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니면 ‘혹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나쁜 행실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운명이 다가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을 의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하는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후세에 남길만한 어떠한 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2주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저는 현실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끝내 포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담당의사가 자신이 오진(誤診)을 했으며 제가 암환자가 아니라고 밝혀주었을 때까지의 그 스트레스에 쌓였던 나날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제 생활은 정상을 되찾았고 평상시와 같이 로타리클럽 회합에 나갔습니다. 그때 제 테이블 위에는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노래 책 한 권이 놓여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 속에는 ‘초아(超我)의 봉사(Service Above Self)’ 라는 로타리 주제에 대한 짙은 인용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 두 마디의 단순한 단어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글자들이 천둥소리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내가 부자나 유명인사나, 권력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남을 돕겠다고 해선 안 된다. 남을 돕는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은 네 자신을 초월(超越)하여, 네 자신의 일보다 우위(優位)에 두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이 아닌 지금이 바로 실행에 옮길 때다”

저는 이때 제 자신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또 하나의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체념(諦念)에서 나온 것이 아닌 나의 가슴으로부터 그리고 깨달음에서 나온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저의 가능성의 기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인, 암의 심각한 위협은 저를 각성케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을 돕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당신 자신의 일보다 우선하여, 지금 그것을 행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당신이 쓰고 남은 여분의 돈, 여분의 시간, 여분의 기쁨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그런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처음 실천한 것은 로타리 재단에 1천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폴 해리스 회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천 달러라는 돈을 베풀으로써 느꼈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유용하게 쓰였을 것을 알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로타리 생활은 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보람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로타리안이란, 삶 속에서 각자 그들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일상생활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 그리하여 보다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 잘못 진단받은 암에 대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아마비 박멸사업 뒤, 우리는 로타리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가장 역동적(力動的)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구억제에 관한 것이 그 목표입니다. 저는 겸손히 이것을 제안하며 로타리안에게 몇몇 불운한 나라들이 겪는 가난의 근원(根源)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看過)한다면 우리는 본질이 아닌 그 표면만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종교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나의 로타리 70年代



蔡熙秉
전RI이사(3650 · 西서울RC)

한국로타리가 중흥기에 들어서던 1972년 나의 로타리 생활은 시작되었다.

물론 친구의 권유로 많은 사람을 사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입회하였고, 그때는 봉사의 이상 실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입회 후 1~2년 동안은 무미건조한 로타리 생활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클럽의 직분을 맡고 나서 봉사의 관념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76년 주거를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그 고장에 로타리가 없음을 보고 서울영동로타리클럽 창립의 산파역을 맡고나서 즐겁게 로타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누군가가 요청하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클럽을 창립하여 2년동안 매주 그 클럽 주회에 참석하고 회원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한강 이남에 처음 탄생된 클럽이라 매일 일과후 한강을 건너서 귀가할 때면 이 새로운 도시에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나 이룩했다는 보람을 가지고 즐거운 로타리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후 1979년 한국에서 처음 거행된 국제행사인 아시아 지역대회에도 몇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특히 Stanley Macaffrey회장과 James Bomar회장의 에이드(Aide)를 맡아 바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린 바 있다.

이 대회야말로 James Bomar회장 말씀대로 이 대회가 어느 국제대회 못지않게 훌륭하고 한국로타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나도 이 행사를 계기로 더욱 로타리에 심취하여 마냥 로타리가 좋아서 매주 서울RC, 남서울RC, 서서울RC 등 그 밖의 로타리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Make up할 때마다 더욱 환영을 받다보니 계속 참석하지 않으면 못 견딜만큼 열성적인 회원으로 변해있었다.

마침내 1986년에는 지구총재, 그리고 그 후 뜻하지 않게 RI이사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로타리안은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욕심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소 소욕지족(少慾知足)이라는 신조로 생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신이나 선인이 아닌 이상 무욕(無慾)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욕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물욕과 명예욕이 팽배하여 각종 범죄와 무질서가 판을 쳐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로타리가 이를 그저 수수방관만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인가 로타리 봉사를 통해 다소나마 이사회가 밝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소욕정신(少慾精神)은 로타리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 증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원높은 봉사를 실천하는 추진력이 되리라 믿는다.

'The 4way Test'의 깨달음



尹周峽
한국로타리총재단 의장(3640 · 南서울RC)

38년의 로타리생활을 즐기면서 이제는 로타리가 나의 철학이자 나의 생애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생명보험회사(大韓生命保險會社)의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이셨던 故 任昌鎬씨는 1957년에 漢陽로타리클럽에 가입했고, 同社 사장인 故 趙慶瑞씨는 1959년 南서울로타리클럽에 가입했다.

이 두 분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로타리클럽 주회에 출석한답시고 12시가 되면 회사에서 규칙적으로 나가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도대체 로타리클럽이라는 곳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출석하며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나로서는 매우 궁금했으며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마저 들기도 했던 차에 어느날 趙 사장께서 “尹 부사장,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는가”라고 권유했다.

막상 회원으로 가입 하겠느냐는 권유를 받고보니 약간 주저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도 호기심을 가졌던 나였는지라 큰 결심(?)을 하고 어느 날 趙 사장을 따라 주회장소로 가게 되었다.

클럽회장(李興培씨)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런대로 입회절차가 끝났다. 그날이 바로 1967년 6월 21일이었다.

첫날은 어리둥절하게 130여 명이나 모인 주회장소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한 시간을 보냈고 둘째날에도 趙 사장과 함께 주회장소인 조선히otel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하나 아는 척 해 주는 이가

없어 매우 쑥스러움을 느꼈지만 이럴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나 스스로 각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인사를 자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담함을 보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주회날에 출석을 해 보았더니 분위기는 사뭇 달랐고 서로 인사를 자청했을 때 나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서로간의 우정의 싹이 트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대로 차차 정이 들고 주회출석이 나의 의무가 되었으며 나의 내자(內子)도 화요일이면 나의 주회출석을 깨우쳐 주기도했다.

또한 로타리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찬동해 주기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면서 38년째 나의 로타리 수레바퀴는 변함없이 돌아갈 것이다.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반겨줄 때 나의 남은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타리 생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의 마음을 차차 무겁게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The 4 Way Test' 이다. 철이 늦게 드는 셈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과연 진실했으며, 모두에게 공평했으며, 선의와 우정을 과연 더하게 했는지,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했는지 자문해 볼 때 그렇지 못했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을 뜻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노력해오고 있다.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장기 기증 결심 다져준 로타리활동

朴鍾允

한국로타리총재단 전의장(3680·뉴大田RC)



나는 1969년에 로타리에 가입하여 34년이란 긴 세월을 로타리와 함께 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로타리코리아지가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오늘에 이른 것처럼 나 또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다.

젊은 시절 열정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한 나는 다시 일어선고자 안간힘을 쓰는 동안 로타리 활동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나를 잊지 않고 있던 로타리클럽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 다시 만난 로타리는 이전과 달리 나에게 로타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내가 로타리 활동을 하지 못하는 동안 클럽에 많은 빛을 졌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그 이후 나는 그 빛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로타리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활동하면 할수록 진정 내가 참다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클럽에서의 활동과 내 삶 속에 진정한 로타리안 정신이 내면화되도록 변화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중에 보람이었다고 기억되는 것은 로타리에서 실행하는 장학제도를 본받아 작은 회사지만 14년 전부터 모든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장학제도를 만들었던 일이다.

나는 12년 전 충남대학병원 안과에 눈은행이 개설되자 제 1호로 안구기증을 하였다. 하지만 막상 안구기증을 한 후 처음에는 웬지 마음이 꺼림칙 했는데 로타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는 장기기증까지 신청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적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죽은 후에는 늙은 내 몸의 일부분이라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아직 장기기증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34년이란 세월을 로타리와 함께 하면서 로타리가 추구하는 이웃과 나누는 삶의 정신이 내 삶에 접목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안구도 장기기증도 그때마다 서슴없이 뒤따라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한다.

로타리를 알지 못했더라면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편협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내 육체까지 나누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로타리 덕분이다

70평생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코 로타리에 입회한 것이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로타리를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권할 수 있게 되었다. 희생과 봉사의 기쁨을 알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로타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더불어 로타리안들에게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심어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로타리코리아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앞으로 더욱 뜻깊고 가치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젊은 로타리안들의 무궁무진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나의 마음을 늘 흐뭇하게 하는 장기기증카드에 적힌 글귀 하나를 여기 적어본다.

Don't take your organs to haven.
Heaven knows we need them here!
(살아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당신의 장기가 더 필요하다. 온전한 육신으로 천국에 오지마라.)

힘든 일도 극복하는 불굴의 봉사정신

尹圭遠

3590 전총재·陝川RC



약 20년 전인 1982년 2월 23일 나는 합천 RC 창립과 때를 같이하여 charter member로 입회를 함으로써 로타리와 인연을 맺었다. 초대 강원호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재임중 타계함으로서 그 잔여 임기를 내가 승계하여 3, 4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로타리 신입생이자 신생클럽 회장으로로서 로타리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클럽회장의 임기를 마친 수년 후에 진주에서 지구협의회가 있었다. 내가 그때 토의 리더를 맡고 지구내 로타리 지도자이신 K총재가 카운슬러를 맡으셨다.

그때까지 나의 로타리지식은 빈천하여 리더로서의 능력이 부족하였다. 준비한 몇가지 자료로 강의식 설명을 하고 시간을 끝내려 하였으나 내 리더역의 수행이 얼마나 서툴러 보였던지 카운슬러인 K총재는 나의 강의(?)를 중지시키고 직접 토의를 주재해줌으로써 토의 시간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나는 그날 협의회에서 돌아와 최선을 다하지 못한 토의 리더로서 잠시 변민하기도 하였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최선을 다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로부터 내 로타리인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로타리는 어떤 역할이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출석(참여)이 봉사중의 봉사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모든 프로그램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로타리의 이상을 키웠다.

로타리는 참여를 통하여 선(善)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로타리 사명은 인류구원이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다져

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자신을 명감(明鑑)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통하여 인격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삶의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 친분을 갖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도 위대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훌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로타리안으로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참여를 통하여 로타리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과 강한 인간애로서 선의를 증진시키는 만남의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다.

20년 로타리생활을 통해 총재지역대표, 총재특별대표 그리고 지구총재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로타리 지도자들의 투철한 로타리정신과 지도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경장애가 있음에도 1999~2000년도 3590지구 총재의 소임을 수행하였으며, 3년간 군민의 대축제인 제전위원장으로 그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했다. 내가 그와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했던 것은 로타리 초아의 봉사정신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로타리 원칙때문이라고 믿는다. 내가 비록 신경기능의 장애인일지라도 결코 비전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로타리 생활을 통해 그간 시대적 환경에 길들여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끊고 새로운 인격적 자아를 계발할 것이다. 또한 인간애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는 인류의 행복이라는 로타리의 과제실천에 변화된 모습으로서 계속 다가갈 것이다.